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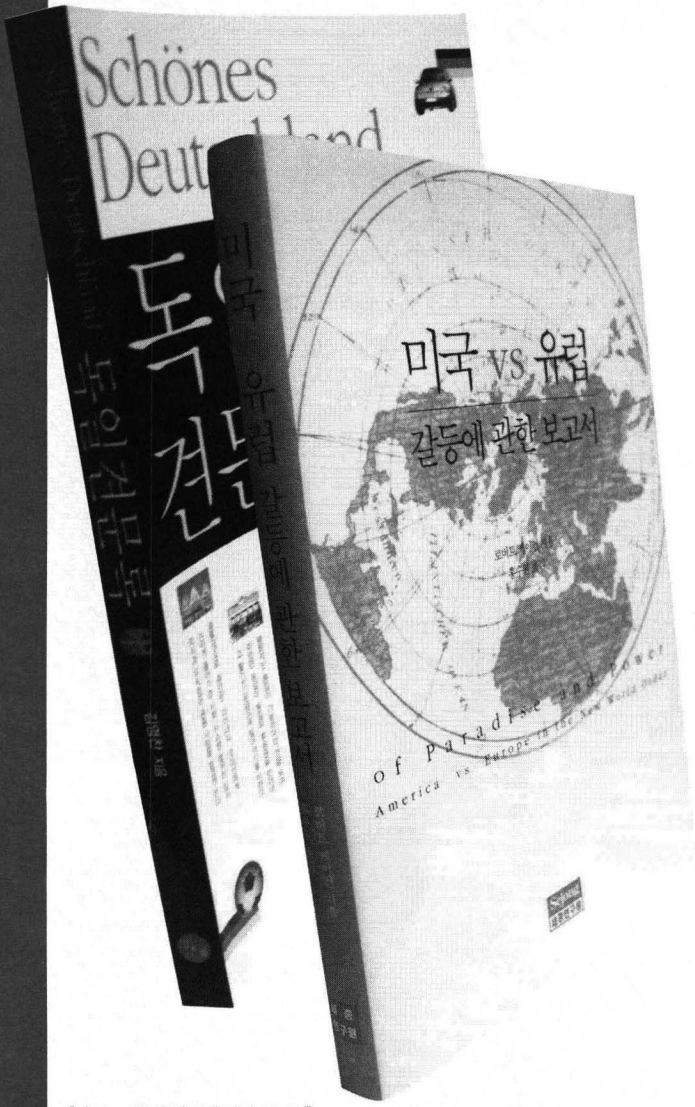
‘거룩한 인본주의’의 숲, 독일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개의 길

독일은 지금 우리에게 꽤 큰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당장 목전에 다가온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는 한국이 주빈국이다. 벌써 많은 작가들이 독일로 날아가 그곳 독자들과의 만남을 가졌고, 또다시 100여 명에 가까운 작가, 시인과 수많은 출판인들이 독일행 비행기 탈 날을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2006년 월드컵까지 감안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독일발 뉴스에 눈과 귀를 열어야 하는 입장이 돼버렸다.

최근에는 9월 18일 실시된 총선에서 보수 야당인 기민당이 현 슈뢰더 총리의 집권 사민당에 승리했으나 연정 구성에 필요한 과반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연정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는 우리네 정치판과 맞물려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흥미로운 것은 슈뢰더 총리의 패인이 노조에 대한 양보 요구, 과도한 복지비용 감축 추진으로 민심을 잃었다는 데 있다.

미국이 ‘불량국가’에 화살을 겨누는 쪽이라면 유럽 국가들은 ‘실패한 국가’들에 관심을 갖는 편이다. 말하자면, 상대적 평화를 추구하는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는 ‘영구 평화’를 실현하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아파도, 늙어도, 직장이 없어도 걱정이 없는 나라’로 일컬어지는 곳이 독일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 판에 복지 예산을 과다하게 축소하려 했던 슈뢰더 총리의 총선 전략은 어쩌면 실패가 예견된 것이었는지 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유럽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독일의 앞뒤를 제대로 살피는 일은 꽤 힘든 일이다. 그 핵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책이 《미국 vs 유럽 갈등에 관한 보고서》인데 저자는 이 책에서 유럽은 지금 ‘국제 보안관’인 미국에 적응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상은 9·11사태 이후 미국이 달라진 것 같지만 미국은 이미 ‘국제 보안관’으로서의 모습을 약간 강화했을 뿐, 이미 세계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의가 곧 인류의 대의화’ 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미국에 대한 야유의 한 측면이다. 동시에 이 말은 독일 특유의 느림보 시스템과 우직함, 오직 아우토반에서만 빠르게 달리는 독일에 대한 간접적 충고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독일은 언뜻 견고해 보인다. 9월 23일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여전히 달러화 1,048원에 비해 유로화는 1,274원이라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미국 vs 유럽 갈등에 관한 보고서》

로버트 케이건 지음 | 홍수원 옮김 | 세종연구원 | 180쪽 | 값 10,000원

《독일 견문록》 김영찬 지음 | 김&정 | 302쪽 | 값 9,800원

● 이 글을 쓴 임동헌은

1985년 단편 《묘약을 지으며》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민통선 사람들》(기억의 집) 《편지를 읽는 시간》 등의 소설, 《길에서 시와 소설을 만나다》(가족식사) 등의 산문집, 《풍경》(가족) 《아기에게》 《별》 등의 사진에세이집을 냈다. 일간지 기자를 거쳐 《출판저널》 주간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로 있다.

최소한 느낌의 견고함만은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측면이 사실 독일을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미국은 망치가 있어야 못을 박을 수 있다고 여기지만, 독일 사람들은 망치 없이도 못을 박을 수 있다는 사고에 젖어 있다는 뜻도 되는 것이다. 미국이 '악의 축'을 들먹이며 그들을 청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일 때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권이 '홍분하지 말고 이성을 찾자'고 짐짓 탄성을 부린 것 역시 독일 문화의 한 측면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vs 유럽 갈등에 관한 보고서》는 미국의 '폭력성'에 유럽이 어떤 끈기와 인내로써 극복하는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다.

《미국 vs 유럽 갈등에 관한 보고서》가 정치적 기류로서의 흐름을 다루고 있다면 최근 출간된 《독일 견문록》은 독일과 독일인의 앞뒷면을 잘 헤아려낸 책으로 읽힌다. 프랑크푸르트도서관에 몰려갈 출판 문화인인, 월드컵경기장으로 달려갈 '붉은 악마'들이든 독일의 속살을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책의 저자가 소개하는 첫 번째 '이상한 풍경'은 저녁 여덟 시쯤만 되면 공동화되는 거리의 모습이다. 예외를 인정받지 않은 상점은 여덟 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하고, 일요일에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그네들 특유의 시스템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 악법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그 속내에는 밤늦게 쇼핑할 일이 무엇이나, 그 시간에는 가족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거룩한 인본주의'가 숨겨져 있다. 실제로 필자가 2년 전 프랑크푸르트도서관에 갔을 때도 그런 풍경은 자주 목격됐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약도를 갖고도 찾지 못할 미술관에는 관람객들이 가득했지만 거리의 상점들은 폐허의 도시처럼 문을 걸어 닫아 담배 한 갑 사기도 힘들었다.

이들의 '거룩한 인본주의'가 얼마나 엄격한가를 알게 해주는 것은 독일에 처음 가는 사람들이 읽게 되는 '프랑크푸르트 핸드북'의 내용에 있다. 이 핸드북의 주요 내용에는 이런 항목들이 차지하고 있다.

"잔디를 깎을 때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의 모터가 달린 기계를 사용하지 못한다. 피아노 연습이나 기타 합주는 하루에 90분 이상 하지 못한다. 개가 계속 짖도록 내버려두면 개 주인을 고발할 수 있다. 밤 10시 이후 육조에 들어가거나 샤워를 할 때는 30분 이내에 끝내야 한다. 왜냐하면 물 흘러내리는 소리

가 이웃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거룩한 인본주의'인가. 인간의 복지를 위한 이 '거룩한 인본주의'의 외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복지제도가 틀을 잡고 있다. 불행하게 실직을 하면 봉급의 6.70퍼센트를 최장 32개월 동안 지급하며, 병원비 역시 '거의 무료'에 가깝다. 이를 위해 독일인들은 꽤 많은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 2004년 기준으로 급여 중에서 연금보험료가 19.5퍼센트, 의료보험료 14.4퍼센트, 실업보험료 6.5퍼센트, 양로보험료 1.7퍼센트로 세금 비중이 40퍼센트를 웃돈다. 거의 세금 지옥인 셈이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나라에 도움을 청하라. 그것은 시민의 권리'라고 적혀 있는 사회부조금 안내 책자의 내용을 보면 세금 지옥이 노후 행복의 근원인 것을 얼마쯤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사회 복지와 세금 구조의 불균형을 생각하노라면 이내 짜증이 치미는 것을 어쩔 수 없다.

프랑크푸르트도서관이 목전에 다가와 있으니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 독일 말로 부흐메세Buchmesse라 부르는 프랑크푸르트도서관은 한마디로 거대한 시장이다. 2004년에만 해도 101개국에서 35만 종의 책을 전시했는데 그 중 10만 종이 신간이었고, 관람객이 27만 명, 취재진이 1만 2,000명이었다. 이쯤 되면 마스터플랜 없이 프랑크푸르트도서관을 찾는 것은 며칠 동안 해외 여행하는 셈치고 '직무유기'를 하는 것에 가깝다.

이런 소소한 정보와 함께 독일인들의 삶을 소개한 《독일 견문록》은 독일에 대한 피상적 인상기만으로 그들을 인식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꽤 진술한 자습서에 가깝다. 그 옆에 《미국 vs 유럽 갈등에 관한 보고서》를 놓아둔다면 독일 문명의 한 축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 어쩔 수 없이 독일 감염증에 걸릴 사람들을 위한, 미옥한 작가의 충고다. **★**